

페루 2012: 모래 절벽 위의 백화점?

우석균

가끔씩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진다. 과연 페루는 필자의 인생에서 어떤 곳인지. 벌써 20여 년 전 2년의 유학생살을 하면서부터 던져온 질문이다. 딱히 정답은 없었다. 그저 미운 정이 든 나라라고나 할까. 필자의 유학 시절은 연 1만%의 인플레이와 극단적인 혁명 좌파 ‘빛나는 길’(Sendero Luminoso)에 나라 전체가 축대밭이 되어 있던 시절이었다. 갑자기 물가가 치솟으면서 가게가 쌀을 팔지 않아 1주일 동안 밖에서 식사를 해결하고, 시험 기간 중에는 ‘빛나는 길’의 송신탑 테러로 정전이 되어 전전공공하고, 가는 곳마다 구걸을 하거나 외국인 돈주머니를 노리는 사람들이 즐비하니 도무지 페루에 마음을 붙일 수 없었다. 게다가 그저 우리나라보다 생활이 불편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조건 모든 것이 다 마음에 차지 않을 정도로 내 마음도 편협한 시절이었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페루를 찾을 때마다 이 나라는 언제쯤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안쓰러운 생각이 마음 한구석에 늘 있었으니 내 마음을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다. 첫 정이라는 것이 참으로 지랄 맞은가 보다. 그래서 내게는 페루가 미운 정이 든 나라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페루 행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한편으로 이제는 페루가 달라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정말 달라진 것일까 하는 생각도 들게 했다.



쿠스코 잉카 박물관의 어린아이들

두 개의 박물관 풍경

6년 만에 다시 간 페루였다. 거리를 질주하는 말끔한 차량들을 보면서 예전보다 살기 좋아졌다는 느낌을 금방 받을 수 있었다. 리마도 리마지만 이틀 후 방문한 쿠스코 공항에 줄지어 늘어선 공항택시들 모두 새 차였으니 국제 광물 가격의 상승에 따른 페루의 비교적 장기적인 호황을 그 누구라도 쉽게 느낄 수 있을 판이었다. 하지만 눈으로 보면서도 마음으로는 그래 봐야 거기서 거기겠지 싶었다. 6년 전 리마의 어느 택시기사가 이제는 페루가 아르헨티나보다 잘 살 걸 하는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가당치 않게 느껴져 코웃음을 쳤을 때와 마찬가지로, 유학시절의 경험은 나로 하여금 페루가 잘 살 수 있는 날이 오리라는 기대를 아예 접게 만들었던 것이다. 실제로 쿠스코 중앙광장에서 조금만 벗어나기만 하면 가난에 찌든 풍경들, 특히 원주민들의 고단한 일상을 여전히 목격할 수 있었으니 더욱 그러했다.

그러다 갑자기 눈이 휘둥그레지는 일을 겪었다. 쿠스코에 있는 잉카

박물관(Museo Inka)에서였다. 유치원생쯤 되어 보이는 아이들, 그것도 대부분 원주민 모습이 뚜렷한 아이들이 몇 팀씩이나 단체관람을 와 있었다. 말쑥한 운동복을 단체로 맞춰 입은 모습, 같이 따라온 몇몇 어머니들의 존재,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이 모든 것이 페루와 인연을 맺은 지 25년 만에 처음 보는 광경이었다.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 봐도 원주민 아이들이 박물관, 그것도 선조들의 박물관을 단체관람하는 모습을 본 기억이 나지 않았다. 또 교복이나 운동복을 입은 원주민 아이들이 몰려다니는 것은 보았어도 그렇게 모두 다 깨끗한 옷차림을 한 것도 처음 보는 광경이었다. 어느 팀이든 어머니가 몇 사람 따라다니는 광경도 지극히 낯설었다. 예전처럼 먹고사는 것이 너무나 힘겨운 시절에는 결코 볼 수 없는 광경이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신선한 경험도 박물관에서 받았다. 이번에는 페루를 떠나기 전날 리마에 있는 국립박물관의 6층 전시실에서였다. 6층 전체가 ‘빛나는



페루 국립박물관

길’, 그리고 또 다른 혁명 좌파 단체였던 투팍아마루혁명운동(MRTA: Movimiento Revolucionario Túpac Amaru)의 만행을 잊지 않기 위해 마련된 공간이었다. 입구에 붙은 사건일지 연대표를 보니 소름이 짝 끼쳤다. 내가 유학하던 시절인 1988년과 1989년을 포함해 그 다음 두 해까지 4년 동안이 가장 사건이 많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 무렵이, 1980년부터 안데스를 근거지로 활동한 ‘빛나는 길’이 도시로 세력을 확장하려고 역량을 집중하던 시절이었다니, 그런 시절에 위험도 아랑곳 않고 태연히 밤늦게 까지 놀러다녔나 싶어 내 철없음에 소름이 돋은 것이다. 게다가 6층 전시실은 공포체험관이나 다를 바 없었다. 일부러 참혹한 사진들을 골랐나 싶을 정도였다. 별안간 앞으로는 조신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쿠스코 잉카박물관에서처럼 신선한 경험을 하게 된 것은 관람이 끝날 무렵이었다. 비디오가 상영되는 방이 있어서 들여다보았더니 청소년들로 만원이어서 앉을 자리가 없었다. 곧이어 상영이 끝나 불이 켜지고 다들 바깥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그때 분명히 보았다. 애써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고 참고 있는 청소년들을, 그들의 숙연한 표정들을. 그들의 나이로 보아 과거 그 험악했던 시절을 직접 겪은 애들도 아닌데도 나라의 아픈 과거를 다같이 느끼고 있었다. 잉카박물관의 원주민 아이들을 보고 그들의 나아진 삶에 가슴이 찡했다면, 국립박물관의 청소년들을 보고는 이제 페루에 ‘빛나는 길’ 같은 무자비한 혁명단체는 발을 붙이지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역시 가슴이 찡했다.

페루의 평화와 번영

잉카박물관과 국립박물관에서 생각지도 못한 일을 경험하고 나서야 달라진 페루의 모습이 새삼스레 떠오르고 눈에 들어왔다. 먼저 첫날 구(舊)도심을 다닐 때의 낯선 느낌이 다시 생각이 났다. 대통령 궁이 있는



리마 중앙광장

중앙광장(Plaza de Armas)을 갔을 때 너무도 평화로워서 영 낯설었던 느낌이. 사실 처음 가본 사람이라면 평화롭다는 표현을 전혀 납득하지 못했을 것이다. 중앙광장은 그리 복잡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관광객, 행사, 일부 잡상인들로 어수선했고, 대통령 궁 주변에는 장갑차와 소총으로 무장한 군경들이 눈에 띄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자 입장에서 평화롭다고 느낀 것은 중앙광장에 있던 이들의 눈길 때문이었다. 경제적으로 한참 어렵고 테러의 위협이 상존했을 때 그 공간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군경과 민간인 사이에 부러워하고 경계하고 불안하고 위협적인 눈길들이 오가는 곳이었다. 잔뜩 긴장해 있고, 때로는 살벌한 표정까지 짓고 있던 군경에게 길을 물어보는 일은 감히 하기 어려운 일이었고, 주머니를 노리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 사주경계를 철저히 하고 다니던 곳이었다. 그런데 그 곳이 이제는 별 걱정 없이 편하게 다닐 수 있고, 아무에게나 길을 물을



브라질-페루 대양간 도로

수 있고, 그러면 친절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되었다.

산 마르코스 대학도 마찬가지였다. ‘빛나는 길’의 주요 도시거점 중 하나여서 과격시위와 강경진압 끝에 사상자가 속출하던 그곳, 그래서 필자가 유학시절 결코 얼씬도 하지 않았던 그곳도 이제는 별다른 위협을 느끼지 않고 다닐 수 있는 곳이 되어 있었다.

현재 페루 변영의 상징이라면 단연 전철 1호선을 꼽을 수 있다. 전철 1호선 공사는 무려 26년 전

인 1986년 시작되었지만 재정난으로 이내 중단되었다. 고가(高架) 위를 달리도록 설계되었기에 필자는 유학시절 중단된 그 공사장을 보면서 전철 공사가 아니라 자동차용 고가도로 건설 공사인 줄 알았다. 그런데 그 공사가 2009년 재개되어 2011년 7월 무려 25년 만에 개통된 것이다. 그만큼 페루는 변해 있었던 것이다.

전철 1호선을 바라보면서 문득 페루의 변화가 일시적인 경기 호조 때문이 아니라 본격적인 발전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30여년 전부터 숙원사업이던 브라질-페루 대양간 도로(Interoceanic Highway)가 2005년 착공되어, 총 10억 달러 이상의 공사비를 들인 끝에 드디어 리마와 상파울루를 잇는 총연장 약 2,600km의 도로가 개통된 지금 페루는 남미에서 브라질 다음 가는 물류 중심지가 될 수도 있는 기회를 잡았다. 마치 리마 국제공항이, 남미에서 상파울루 국제공항 다음 가는 허브 공항으로 변신했듯이 말이다. 리마와 상파울루가 버스로 사흘밖에 걸리지 않는 세상이 되었고, 브라질 서부의 농산물 상당량이 리마를

통해 아시아로 수출될 가능성이 농후하고, 대양간 도로가 발전의 축이 되어 도로 접변 지역까지 성장할 가능성 등을 생각하면 페루의 본격적인 발전 가능성을 부정할 수만은 없는 것이다.

쿠스코의 주인이 된 파차쿠텍

브라질-페루 대양간 도로는 페루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해안지대와 산악지대의 대립, 더 정확히 말하자면 안데스의 소외 역시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 리마에서 쿠스코에 이르는 도로 전 구간이 포장되어, 양대 도시를 잇는 7박 8일짜리 육로 관광 상품까지 나왔다고 하니, 페루의 국가 통합이 본격화될 것이다. 사실 이미 1950년대부터 이촌향도가 시작되었지만, 이 현상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했다. 원주민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안데스 출신 이주민들이 도시 빈민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대규모 이촌향도로 해안지대의 크리오요 문화와 산악지대의 원주민 문화가 뒤섞여 새로운 국민문화를 창출할 가능성을 열었다지만 두 문화가 상호문화적 교류를 했다기보다 안데스 문화가 하위문화로 이따금 크리오요 문화에 참조가 되는 정도였을 뿐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원주민이 자신의 역사, 문화, 언어 등에 대한 자긍심이 더욱 높아져 있어서 그러한 불평등한 문화 관계 수준에 머물 것 같지는 않다. 쿠스코 중앙광장을 차지하고 있는 파차쿠텍 동상에서 그 징후를 볼 수 있었다.

잉카 9대 군주인 파차쿠텍(재위 1438~1471)은 잉카를 조그만 부족국가에서 제국으로 탈바꿈시킨 인물이다. 나라의 기틀을 완전히 다졌을 뿐만 아니라 광대한 영토를 정복했다. 우리 역사 속 인물과 비교하자면 세종대왕과 광개토대왕의 역할을 혼자 다한 셈이다. 그래서 볼리비아나 에콰도르에서도 파차쿠텍(지역에 따라 파차쿠텍티, 파차쿠텍 등으로도 부른다)의 이름을 딴 정당이나 시민사회 운동이 있을 정도로 안데스 원주민의



쿠스코 중앙광장의 파차쿠텍 동상

과거 영광을 대변하는 인물이다. ‘파차쿠텍’이라는 이름 자체가 좁은 의미로는 ‘대지의 흔들림’ 즉 지진을 가리키지만, 넓은 의미로는 새로운 세상의 도래, 즉 개혁을 의미한다. 쿠스코에는 이미 1992년 파차쿠텍 동상이 세워졌다. 아메리카 정복 500주년을 고발하는 의미에서였다. 동상과 동상 받침대를 합치면 높이가 무려 33.9미터에 달해 그 위용이 대단하다. 그렇지만 이 동상은 시 외곽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인지 작년 7월 또 다른 파차쿠텍 동상을 쿠스코 중앙광장에 세웠다. 잉카 시대에 잉카 군주가 종교 의식을 비롯해 국가적인 행사를 주관하기 위해 만든 광장이지만 그 주변에 대성당과 예수회 성당을 비롯해 식민지 시대 건물만 남은 광장에 파차쿠텍 동상을 건립한 것은 도시 외곽에 동상을 건립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의미를 지닌다. 쿠스코에서 즉위한 마지막 잉카 군주인 와스카르가 거쳐하던 공간을 잉카박물관으로 탈바꿈시켰듯이, 중앙광장도 쿠스코의 원

래 주인에게 돌아간 것이다. 이러한 변화가 페루가 이제는 진짜 달라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든 것이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의구심이 들었다. 페루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번만은 다르다고 생각했지만 결과는 여전히 마찬가지였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에필로그: 절벽 위의 백화점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리마는 도시 전체가 거의 평지이다. 하지만 바닷가에 가보면 리마가 약 100미터의 수직 절벽 위에 있는 평지에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 끝에 해안도로가 있고, 절벽 아래의 좁다란 평지에도 해안도로가



절벽 아래 해안도로에서 올라다본 리마

나 있다. 두 개의 해안도로가 있는 셈이다. 그 절벽은 사암(砂巖)으로 되어 있다. 즉 모래바위 절벽이다. 리마가 모래사막에 위치해 있으니 그리 이상할 일도 아니다. 이 사암 절벽은 다른 나라의 바닷가 도시에서는 보기 힘든 독특한 풍경이고, 그 절벽 끝에 리마의 명물이 하나 더 있다. 1998년 문을 연 라르코마르(Larcomar)라는 백화점이다. 바닷가 절벽 위에 위치해 있어서 탁 트인 바다나, 건물들이 늘어서 있는 해안선을 바라보는 기분이 그만이다. 더욱이 백화점이 밀폐된 공간이 아니다보니 밤중에 그곳 레스토랑에서 생생하게 들리는 파도소리와 함께 식사를 즐기는 운치도 그만이다. 그래서 평화와 번영을 구가하는 오늘의 페루의 상징처럼 느껴진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백화점은 위태롭기 그지없다. 페루 역시 환태평양 지진대에 속해



라르코마르 백화점

있는데 바위절벽도 아닌 무르디 무른 사암 절벽 꼬트머리에 덩그러니 지어놓았으니 말이다. 더구나 절벽 위 해안도로를 사이에 두고 도시 쪽으로는 고층건물도 꽤 있지만, 바닷가 쪽으로는 건물이 없는데 유일하게 라르코마르만 호화로운 자태를 뽐내고 있으니 건축 허가 과정에서 뭔가 부당 거래가 있었을 것 같은 생각마저 든다.

사암 절벽 위의 이 백화점이 혹시나 페루의 지난 역사와 미래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를 빌 뿐이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페루는 1830년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두 가지 1차 산품 붐이 국가 경제를 견인하다가 그 붐이 끝나면 나라 전체가 휘청거리는 행태를 반복했다. 이는 붐으로 얻는 이익을 거의 항상 외국 투자자들이 독차지했기 때문이다. 그 붐으로 인한 국내산업 파급효과는 거의 없었다. 다만 한번 붐이 일면 떡고물도 적지 않아서 페루가 발전하고 있다는 착시 현상을 야기하곤 했다.

그리고 떡고물을 주로 챙긴 해안지대의 과두 지배층이나 매판 자본가, 혹은 부패한 정치인들이 그때마다 리마 도시개발내지 재정비에 착수하면서 착시 현상은 더 심해지곤 했다. 뒤가 구려서 공공사업을 통해 선심을 베푼 것이었을까? 아니면 그들 역시 착시 현상에 사로잡혀 진짜로 페루의 발전이 영원하리라고 믿은 것일까? 하지만 세계시장의 변화 혹은 생산량 급감 등의 이유로 떡고물이 사라지면 어김없이 진실이 드러났다. 국가 경제는 휘청하고 나라 전체가 나락으로 떨어진 것이다.

물류 중심지로서의 페루는 아직 가능성일 뿐이고 지금의 경제호황을 이끈 것은 세계적인 구리와 아연 광산인 안타미나 광산이다. 하지만 이 광산의 주요 주주는 외국인들이다. 페루에게는 채굴권 대금이나 세금 등 그저 떡고물만 떨어질 뿐이다. 그 덕분에 라르코마르 백화점이 생겨나고, 길 건너에 메리어트 호텔이 들어서고, 백화점 일대 공원이 재정비되었지만 구리와 아연이 페루 경제의 다른 부문들의 발전에 도움이 될 가능성은 많지 않아 보인다. 그렇다면 구아노, 고무, 사탕수수, 면화, 석유, 어분 등 지난 세월 차례로 페루의 경제 붐을 이끌었던 품목의 시장성이 떨어지자마자 나라 전체가 나락으로 떨어진 여러 차례의 경험이 되풀이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라르코마르 백화점을 바라보면서 씩씩할 따름이다. 모래바위 절벽 위에 위태롭게 서 있는 백화점, 그것이 페루의 역사이자 미래상일까 싶어서이다. 2012년의 페루는 분명 희망도 보여주었지만, 여전히 의구심을 안겨주었다.

우석균 -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HK교수